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 얼음 깨기

## 위기

## 교회행사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가 기회로>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Q.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 6월

- 8-9일 더함 공동체 수련회
- 9일 어와나 1학기 종강
- 16일 더가족세미나(4주간)
- 21-22일 유학생 수련회
- 28-30일 더원 공동체 수련회

### 7월

- 7일 더가족세미나 종강
- 13-14일 더조이유아유치부여름성경학교
- 20-21일 초등1,2,3부 여름성경학교
- 26-29일 중등,고등부 수련회

## 경배 찬양

## 꽃들도

- 이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 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후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 선교

## [전세계 선교사]

### 우즈베키스탄

- 팀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연합사역을 이뤄가도록
-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 U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과 은혜가 동역 교회들과 동역자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 교회 소식

## 한문장 큰 울림

1. 남전도회 체육대회 공동체 안의 돌아보아야 할 지체와 마음을 함께하기 위한 남전도회 체육대회(배구, 족구)를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일시: 6월 22일(토) 08:40~13:00, 종료후 점심식사

-장소: 신흥 중학교/ 신흥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문의: 유신 집사(010-7400-9996)

2. 더가족 세미나 더온누리 하늘가족 디딤돌 과정을 오는 6월16일 오후 4시 3층 레위의 장막에서 4주간 진행합니다. 더온누리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하기 위한 과정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해주세요.

3. 수요일예배 찬양대 찬양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막 인생 2막을 시작하신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고영숙 전도사)

모든 것 중의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 존 웨슬리 -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행 18:9-10)**

오늘 말씀은 12~1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협 근처에 자리 잡아 남북 간의 육로뿐 아니라 동서 간의 해로까지 모든 방향의 교역로가 나 있었습니다. “이스미아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뱃짐들과 심지어 조그만 배까지도 운반할 수 있는 “디올코스”가 있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회상하며 **고전 2:1-3**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분명하게도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과 부도덕” 함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교만과 부도덕함과 선명하게 충돌합니다. 고린도는 주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주(州)의 수도로서 아텐(아테네)보다 더 우월한 정치적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헬라철학의 근원지로서의 자부심도 대단했구요. 특히 그들의 부도덕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부도덕함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고린도를 두른 해발 600m의 아크로코린트 바위 언덕 위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의 영향이 컸는데요. 이 신전에는 1천 명의 여자 노예들이 그 여신을 섬겼고, 그들은 밤에 창녀가 되어 거리들을 돌아다녔답니다. 고린도의 이런 성적인 난잡성은 악명이 높아서 “코린티아조마이(고린도스럽다)”는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로, “코린티아스테스(고린도여인)”는 매춘부와 동의어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노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복음은 고린도인들에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명한 경고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청이기에 교만하고 죄 많은 이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 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에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며 고린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이끄셨는데 이 기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가 다시 폭발한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면서(주후 51~52년) 바울을 법정에서 공식 고발한 것입니다(13절). 고린도사역의 최대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리오의 **14~15절**을 통해 이 고발을 기각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진정한 유대교를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법을 어긴 것임을 입증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갈리오 오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유대교 내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15절의 “문제(제테마)”로 번역된 단어는 “토의, 논쟁”을 의미하는 “말다툼”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갈리오의 기각은 내부 문제는 너희들 안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 신앙에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복음은 이제 불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게 되었지요.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된 종교로서 복음의 자유가 제국의 정책으로 보장된 셈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문 것도 갈리오의 사법적 결정 때문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므로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18:10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던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원만한 성격의 갈리오 총독의 최소간섭주의 원칙을 통해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 합법 종교 중의 하나인 유대교의 분파로 간주하게 하여 유대인들의 위협과 로마 제국의 견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오랫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함을 믿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교만하고 부도덕한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외치는 바울의 걸음을 숭하게 만나는 위기마다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도, 내가 걷는 걸음 가운데 만나는 위기 가운데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여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1] 현재 직면한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나눔2] 그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b>나눔</b>	주일 말씀 [위기가 기회로 / 사도행전 18:12-23]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b>기도</b>	<b>바른 지식</b>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b>바른 믿음</b>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소서.
	<b>바른 행함</b>	위기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